



제2353호 2024. 6. 16. **연중 제11주일**

제1독서 : 에제키엘서 17,22-24

제2독서 :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5,6-10

복 음 : 마르코 복음서 4,26-34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발 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초등부

주 소 : 03083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56 가톨릭 청소년회관 내 '작은마음'

이메일 : chota_littlemm@naver.com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마르 4,31



그림_ 가브리엘라 수녀님

오늘의 미사

✦ 화 답 송

◎ 주님, 당신을 찬미하오니 좋기도 하옵니다.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씨앗은 하느님의 말씀, 씨 뿌리는 이는 그리스도이시니 그분을 찾는 사람은 모두 영원히 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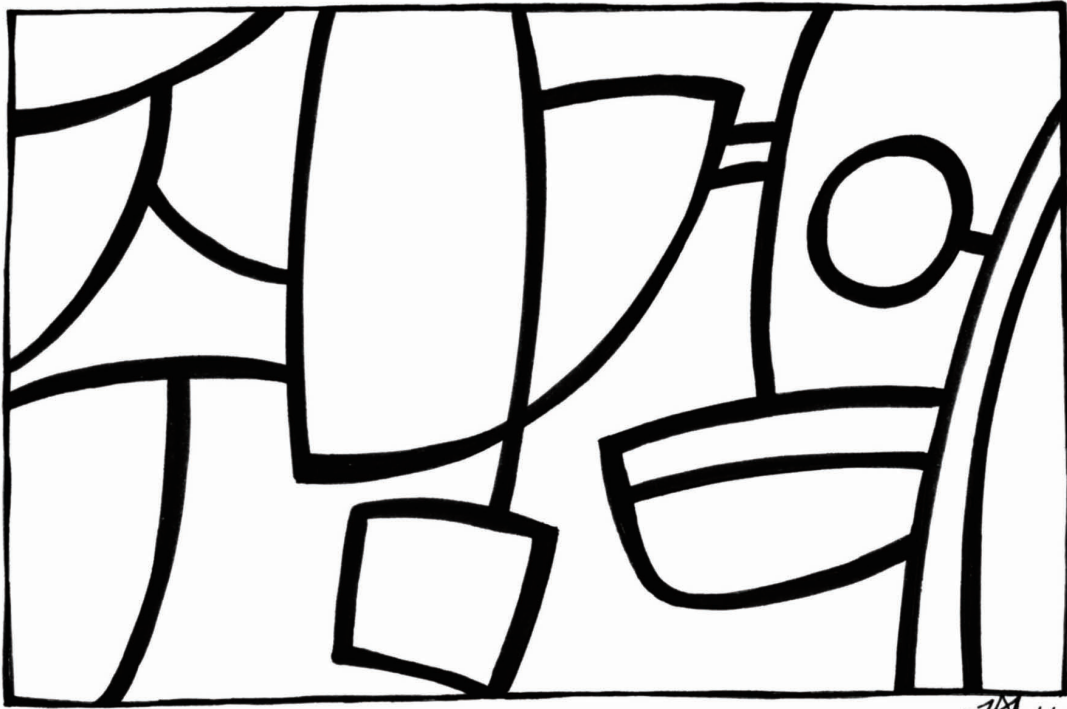
◎ 알렐루야.

✦ 영성 체 송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네.



말씀그림



2024 10월

● 말씀그림에 숨어있는 한글을 찾아보고 예쁘게 색칠하세요.

우리는 언제나 ○○에 차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몸을 떠나 ○○○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 살든지 ○○ 살든지 우리는 주님 ○○에 들고자

애를 씁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 앞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마다 ○○ 것이든 ○○ 것이든,

이 몸으로 ○○에 따라 갚음을 받게 됩니다.

◇ 제2독서 <2코린 5,6-10>

● 오늘의 독서를 읽고 빈 칸을 채워 보세요.



하느님 나라의 씨앗

친구들, 산에서 바위 위에 소나무가 자라는 풍경을 본 적이 있나요? 커다란 소나무가 단단한 바위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 하느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14지구 동작동 성당
문필정 바실리오 신부님

그런데 처음부터 소나무가 바위 위에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커다란 소나무도 아주 작은 씨앗에서부터 시작한답니다. 작은 소나무 씨앗이 바람에 실려와 바위에 자리를 잡고, 바위의 미세한 틈새로 뿌리를 내려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여 결국에는 바위 사이를 갈라놓을 만큼 큰 소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하느님 나라를 작은 씨앗에 비유하셨어요. 우리가 보기에 연약하고 힘없는 작은 씨앗에 불과하지만, 땅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느님 나라도 작지만 강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작은 마음 안에 하느님 나라의 씨앗을 품어보면 어떨까요? 우리도 모르는 새에 자라나서 어느새 멋진 하느님 나라의 일꾼이 될 테니까요.



오늘 복음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빈칸을 채워보아요!
하느님의 나라는 ○○○와 같다. 땅에 뿌릴 때에는 ○○의
어떤 ○○보다도 작다.



☆ 제 목 하느님은 사랑이시다

☆ 수 상 자 안지울 레오 (신도림동 성당 3학년)



레오 어린이의 그림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요. 예수님의 다리에 착! 안겨 있는 레오의 모습과 표정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심사위원들도 이 모습과 표정에 반했답니다. 오늘 복음의 거자씨 처럼 레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무럭무럭 자라고 있을 거예요. 작은마음 친구들도 예수님 사랑 안에서 성장하는 한 주를 보내 보아요.